긴급 좌담회

북한 5차 핵실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일 시 | 2016년 9월 12일(월) 오전 10시30분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프 로 그 램〗

시 간	내 용	
10:15~10:30	등 록	
	사 회 : 박 인 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바른사회 공동대표)	
10:30~10:35	개 회	
	주 제	**"북한 5차 핵실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10:35~11:20		신 인 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김 철 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 지 수 (명지대 교수)
11:20~11:30	종 합 토 론	
11:30~11:40	질 의 응 답	

〈긴급좌담회〉

북한 5차 핵실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토 론

북한 핵 완성에 대한 우리의 대비

신 인 균
(사)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북한의 5차 핵실험의 위력은 우리 기상청 발표대로 지진파 5.04로 가정 했을 때는 28~34kt, 지중해 지진센터와 미국 지질연구소의 발표대로 지진파 5.3을 기준으로 본다면 무려 64~80kt의 위력이다. 이는 2009년 2차 핵실험의 위력으로 알려져 있는 4kt~5kt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히로시마 투하 원자탄인 '리틀보이'의 위력이 16kt임을 감안한다면 무시무시한 핵무기 개발을 완성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의도적으로 북한의 핵 위력을 축소발표 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국민은 북한의 핵 능력을 오판하여 제대로 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북한의 핵능력을 바르게 알려 북핵 대응에 대한 일치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핵탄두 폭발실험'이라고 발표하여 무기급 핵미사일의 양산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6년3월11일 핵투발 수단의 다종화를 지시하였고, 북한은 올해만 대륙간탄도미사일인 광명성과 단거리 미사일인 스커드, 스커드-ER,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과 무수단 발사에 성공하였고, 궁극의 핵무기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의 발사까지 성공시켜서 단-중-장거리 공격미사일은 몰론 응징보복 능력까지 갖추었음을 과시 한 후에 핵탄두 폭발 실험을 보여 그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논란은 무의미하다. '한국형'이라는 단어를 억지로 구겨 넣어서 미국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포장을 할 상황도 아니다. 미사일방어시스템의 가장 선진국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잘 활용하여 합동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다종화된 핵투발 수단에 모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다종화된 방어수단을 보유하여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이는 PAC-3, 사드, SM-3 등 다단계, 전방향의 요격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어는 필수적 요소지만, 그것으로 북한의 공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응징보복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스텔스 전투기의 추가 도입으로 김정은 은신처 의심지역에 대한 동시다발 적인 폭격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를 800km

에 500kg 의 탄두가 아니라 800km에 1000kg의 탄두로 조속히 개정하여 함경북도 지역까지도 관통 탄두를 날릴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북한 핵실험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우리 정보능력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계획보다 훨씬 강화된 영상정보능력과 신호정보수집 능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계획된 수준은 여전히 미국에의 정보종속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국민과 정부의 의지가 합해져야 한다. 정부도 더 이상 표를 의식하여 안보상황을 도외시하지 않아야 하고, 국민도 정부에게 달콤한 복지 이전에 든든한 안보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하는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야 한다.

MEMO

북한 5차 핵실험 사태 진단 및 대응 방향

김 철 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안보상황 인식 대전환이 긴요함

△ 북한 핵미사일 위협 : 위중한 사태 ☞ 긴박하게 복합적으로 대응해야 함
-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 진척되어 미사일 탑재 단계로 진입, 실전배치 시간문제

△ 국제 공조 및 유엔안보리 규탄/제제결의(2270호) 확대 ☞ 필수적이나 불충분
-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조치에 안주 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군사력 불균형 심각

△ 김정은 도발 오판 리스크 : 심각한 난제, 전략적 지략 발휘가 긴요함
- 한미연합 군사대비태세 확충 + 김정은의 성격, 의사결정에 dud향주기(Influencing)
- 세계 전쟁 사례 : 지도자의 성격, 자존심, 오판 등 전쟁을 유발(무기는 수단)
※ 안보위기의 본질에 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김정은의 의사결정 스타일 연동

□ 5차 핵실험 사실관계(Facts) 및 파장

△ 북한 정권 수립일 9월 9일 9시(평양시간)
- 4차 핵실험(1월 6일) 이후 8개월 만에 단행, 중국 G-20 /라오스 아세안회의

△ 10kt 규모로, 역대 최고 폭발력 : 북한의 핵실험 규모 확대
- 한국 기상청 관측 진도 5.0, 미국

△ 핵탄두 실험 주장
- 핵무기연구소 명의로 이춘희(73) 내세워 4시간 후 “핵탄두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다”고 발표
-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장비한 전략 탄도 로켓들에 장착 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확인”

* 1월 6일 4차 핵실험 이춘희 "조선노동당은 전략적 셈법에 따라...."로 성명, 2월 7일 광명성 4호 발사에도 분홍색 저고리에 검정색 치마 한복입고 발표

△ 핵탄두 탑재한 다종의 미사일로 공격 가능(실전배치 시간문제)

- 핵탄두 탑재는 과학기술 및 공격의지의 결합이므로 추정으로 접근할 대상 아님.
- 북한의 핵 기술, 미사일 기술 진전(임계점 넘어 자신감 확보)
-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국의 당면위협)

※ 핵공학, 기술적 관점에 몰입되어 '실패냐 성공이냐?' 저울질하며, 핵 피해 규모(최소 24만명) 거론하는 접근도 문제

□ 핵미사일 폭주 김정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 김정은의 전략적 셈법

-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광명성) ⇨ 소형화된 핵탄두 모형 공개 ⇨무수단 발사 ⇨ SLBM 발사 ⇨ 노동 3발 ⇨ 5차 핵실험(핵탄두 위력 판정)
- '핵무기 선제 타격', '사변적인 행동 조치들을 다계단으로 보여줄 것'을 공언

*** "셈법이 먹혀든다!"고 맹신하며 과시하는 흐름이 식별됨**

△ 왜, 핵·미사일 도발 행보?

- 고립심화, 자멸 초래 아니라 '체제생존, 내부결속, 권력공고화'에 기여한다고 판단

* '공격적 성향, 충동적 기질, 과시형 스타일' 등 개인적 특성이 영향을 준 것

- 극도로 긴장을 끌어 올려서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치킨게임' 양상
- 김정은이 '핵 선제공격권' 운운하며 위협하는 것은 핵을 이용한 선전선동
- 핵·미사일에 집착하며 과시적인 도발적 언행으로 표출(사진과 영상을 무더기로 공개하며 선전선동에 이용하며 과시행보)

* 체제 내부 동요 차단 : 김정은 집권 5년 동안 처형된 간부가 130여명에 달할 정도로 폭압적 공포정치가 난무하고 외교관 연쇄 탈북 및 해외식당 여종업원 집단탈북 현상이 속출할 정도로 체제 내부에 의미심장한 균열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음

△ 김정은 행태와 성격의 7대 특징

7대 특징	대표적 사례 및 추론 근거
① 김일성 모방 심리	* 외모, 복장, 말투, 제스처 등 '김일성 따라 하기' 연출하며 이미지 공세 펼치며 주민 친화적 스킨십까지 구사

7대 특징	대표적 사례 및 추론 근거
② 과시형 스타일	* 대범함 과시하며 주목 끌기, 미디어 영향력 중시(CNN, AP 등) * 미농구 선수 로드먼 초청(2회) 등 파격적 돌출 행보
③ 폭압적 공포정치	* 장성택, 현영철 비롯한 간부 130여명 잔혹한 공개 처형 * 국가안전보위부 이용하여 인권유린, 주민 통제
④ 충동적 감정기복	* 변칙적 군간부 강등/승진, 혁명화 조치 후 복권 * 공격적 언동하며 감정 조절 장애 현상 표출
⑤ 독단적 의사결정	* 자신의 판단이나 결정에 이견을 용인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 목표 설정하여 지시하고 달성치 못하면 극단적 처벌
⑥ 핵 - 미사일 집착	* 4차/5차 핵실험 단행, 탄도미사일 발사(33회) 현장 참관/지시 * 핵보유국 명문화하며 핵무기 선제 기습 타격 언동
⑦ 어린나이 콤플렉스	* 원로간부 능멸, 안하무인 언동, 책임 뒤집어씌워 세대교체 * 장소 불문하고 흡연, 부인 리설주 수시로 대동하고 어른 행세

□ 대처 방향 및 핵심 과제

△ DIME(외교, 정보, 군사, 경제) 요소 동시통합(Synchronization)

① Diplomacy : **유엔안보리 추가 제재 (헌장 41조 '비 군사적 조치')**

- 중국,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면서도 6자회담을 통한 대화 해법을 지지하려는 움직임 예의주시하여 대처
- 북한 핵미사일, 인권문제 관련 국제공조를 강화

② Information : **외부 정보 대량으로 체재 내부 유입 등**

- 북한 엘리트층과 주민들에게 깨우침의 메시지를 광범위하게 유입시키는 전략커뮤니케이션(Strategic Communication)을 체계적으로 추진
- 범정부 차원의 제반 기능을 국가 전략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어 '주제, 메시지, 이미지, 행동'을 통합하는 안보전략이다.[1]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려면 전통적인 군사력 위주의 마인드를 뛰어넘어 외교/국방/통일/정보 분야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유기적으로 공조해 나가야 한다.

③ Military : **핵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응징보복 태세 등**

- 킬체인, KAMD, 대량응징보복 등 개념적 기획수준 아니라 신속한 구축
- 우리 군의 첨단 전력으로 억제 능력 신속히 보강

1) 전략커뮤니케이션(Strategic Communication)은 전·평시 국가의 전략목표 달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력의 제 요소와 수단을 활용하여 주요 행위자들의 인식, 신념,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통합된 체계와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출처 : 美 합동전력사령부 전략커뮤니케이션 Handbook(2008. 9. 1.)

- 탄도미사일 다층 방어체계 조속히 구축
- '확장억제'(핵우산,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 체계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를 포함한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
* 대북 정보감시 정찰 역량 획기적 향상, 한국군 단독 '4D 작전개념'을 추진하는 것으로는 불충분.[2] '정보·감시·정찰'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

④ Economy : 김정은 돈줄 조이기, 국제사회의 경제 금융제제 강화

- 김정은 정권 통치 자금난에 허덕이도록 돈줄 조이기

※ 안보상황 관리 : 정치-군사(Political-Military) 게임 역량을 증진

△ 미군의 핵전략 자산 한반도 상주 전개 요청

- B-52, B-1B, B-2 전략폭격기, F-22 등
- 핵우산,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군사능력 행동화 조치 보강
- 주한미군의 탐지·정찰자산은 물론 맞춤형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전략 에 입각한 미국 정부 차원의 안보 공약에 관한 메시지가 명확하게 각인

△ 안보전략 공세적 방어로 대전환, 대북압박 공조를 강화

- '정치-군사(POL-MIL)' 관점으로 안보전략을 강구
-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경고, 만반의 응징태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 특정위협 대비에 과도한 쏠림현상을 방지하며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교란·기만 술책에 허를 찔리지 않도록 징후를 포착하여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데 집중

△ 고위급 탈북 유도 체제 내부 분열 유도

- 탈북자 3만 명 시대 넘어 급증 사태 대비, 핵미사일 과학기술자 탈북 유도
- 권력 핵심부의 정보사항까지 선별적으로 공개 ⇨ 내부 동요 유도
- 탈북군인 및 엘리트 탈북인사들의 전략적 가치에 부응하도록 관리하고 지원

△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깨우쳐 주는' 소통 활성화

- 김정은의 폭압적 공포정치와 인권유린, 핵미사일 집착 현상의 폐해를 북한 주민들 스스로 깨우치도록
- 북한 주민들의 '깨우침'을 겨냥하는 동시에 우리 국민의 안보의지를 결집

△ 정치권 및 민간단체의 핵무장 논의 확산 ⇨ 전략적 활용

---

2) 4D 작전개념은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핵심요소를 축약한 용어다.

- 5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 "핵에 대처하는 것은 오직 핵뿐"이라며 핵무장을 주장
- '즉각적인 남한 핵무장', '미국의 전술 핵무기 남한 배치', '6차 핵실험시 북한 핵시설 타격' 등 다양한 논의 활성화

□ 결론

△ 김정은 충동적 오판 ⇨ 핵무기 도발의 촉발요인(기습 선제타격)

- 핵미사일 고도화 조치와 오판이 배합되면 예측불허의 사태가 유발될 소지가 농후
- 예측불허의 성격으로 도발이 현실화할 가능성 핵·미사일을 앞세워 협박공세를 펼치는 복합도발을 획책할 것임(한국군의 응징 보복을 빌미로 확전으로 유도하려는 책략도 구사할 것임)

△ 김정은의 행태와 특성을 간파하여 이를 역이용하는 지략이 절실

- 김정은의 노림수를 정확히 규명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실존하나 도발 행태에 압박을 가하고 체제 동요와 분란을 유도해야 함

△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견고하게 다지면서 '치열한 인식의 전선'을 주도

-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 공세가 먹혀들지 않도록 '말이 아닌 행동'이 메시지로 작용하여 김정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무모한 오판을 억제 및 확고한 응징 태세를 확립

MEMO

북한 5차 핵실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이 지 수
명지대 교수

1. 사안의 통합, 단순화 전략-"말과 외교의 정치"

- 북핵, 북한 인권, 북한 민주화, 통일, 동북아 안정, 한반도 번영
- 이상과 같은 제반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비용과 신속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단순화된 방안이 필요함

: "김정은 없는 북한" 체제를 전제로 새 틀 짜기 내외 천명
: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 전략의 최소임

2. 한국정부의 방안에 대한 러·중 설득과 동의획득 전략

- 1970년대 북한 수교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 1990년대 초, 한소수교, 유엔 가입, 한·중수교의 경우와 비교해 설득과 동의의 핵심에 몰입해야

: (과거) 대한관계와 대북관계의 비교손익계산의 결과 측면이 있었음
우호적 국내 여론
: (현재) "김정은 없는 북한"과 "김정은의 북한"의 손익계산 제시

3. 배경 설명

1) 김일성 3부자 (백두혈통) 의 북한정권과 탈 백두혈통 정권의 상이성

2) 북핵 6자 회담, 국내외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 , 시민단체의 북한 민주화 운동, 정부의 통일정책 (평화통일정책, 남북공동번영정책, 햇볕정책 등등)

: 흡수통일론 등등에 대한 반성적 인식
: 핵심 모순점 ("**백두혈통 정권**") 을 간과 내지 묵시 내지 보류함

3) 백두혈통 정권의 정당성 기반

가. 권력의 신화화
나. 신화를 유지하기 위한 폐쇄 통제의 불가피성
다. 폐쇄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항상적 위기상황 조성

4) 백두혈통 정권의 존속 조건

가. 대내외 위기의 확대 재생산 일상화

나. 폐쇄 유지 및 강력한 주민 통제 강화

다. 경제적 시스템의 노예경제화 완비

MEMO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38, 3층 (북창동 93-45)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